



비 오면 느낄 수 있는 제주의 또 다른 매력

비자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우중에 진면목’ 사려니숲길·비자림… 자연이 주는 몽환
‘보기 힘든 손님’ 영도폭포, 폭우가 만들어내는 웅장함
골라가는 박물관·미술관… 뛰놀고 싶다면 실내액티비티

유난히도 시원한 올여름, 매년 늦지 않던 손님이 이제야 찾아왔다. 제주에도 부슬비 내리는 장마가 시작된 것이다. 뜨거운 태양, 무더위와 함께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이지만 도민과 관광객들은 흐린 하늘에 펍 당황스럽다. 하지만 괜찮다. 제주에는 비가 내려도, 아니 비가 내려야만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우중충한 지금이 오히려 제주의 또 다른 감성을 누릴 기회다. 장마철하기에 좋은 곳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를 맞으면 이 화산송이가 평소보다 더욱 붉어지고 흙내음을 진하게 뿜어낸다. 여기에 삼나무 향이 더해져 상쾌하면서도 아련한 기분을 자아낸다. 무장에 데크길과 화산송이길을 걸을 수 있는 붉은오름 출입구에서 출발하는 것을 추천한다. 운영시간 오전9시~오후5시. 입장료 무료. 비자림로 출입구=제주시 봉개동 교래리 산 137-1. 붉은오름 출입구=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158-4.



비 온 뒤 흙내음과 피톤치드가 인상적인 사려니숲길.

▶ ‘몽환적인 분위기’ 사려니숲길
제주의 비경 중 하나인 사려니숲길은 삼나무를 비롯해 졸참나무·서어나무·때죽나무·편백나무 등 다양한 수종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비 오는 날 차분하게 깔리는 안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신성한 숲’이란 뜻을 지닌 ‘사려니’에 걸맞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물이 잘 빠지는 화산송이가 많아 비가 와도 길이 질척거리지 않는다. 특히

▶ 감각을 깨우는 천년의 숲 비자림
비 오는 날의 비자림은 우리의 감각을 기분 좋게 자극한다. 화산송이의 적색과 물머금은 이끼, 비자나무의 녹색이 적록대비를 이룬다. 사려니숲길보다도 화산송이가 촘촘히 차 있어 걸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느낌과 소리가 좋다. 비자나무에서 나오는 향긋한 피톤치드가 청량한 숲굴의 공기와 만나 뇌까지 맑아지는 기분이다. 비자림엔 500~800년생 비자나무들이 뽕뽕이 들어서 있다. 앞들이 비를 막아줘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인 걷기엔 최적이다. 비자나무뿐만 아니라 풍란, 풍짜개란, 비자란 등 희귀난과 식물들이 자생한다. 지저귀는 새소리가 지저귀니 산림욕의 정수를 할 수 있다. 비자림 산책로는 A코스와 B코스가 있다. B코스는 다소 거친 돌멩이길이 포함돼 있으니 여건에 따라 코스를 선택하면 되겠다. A코스는 2.2km 정도로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운영시간 오전9시~오후7시, 입장료 유료.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55.



비가 많이 내려야만 볼 수 있는 영도폭포.

▶ 폭우가 반가워지는 영도폭포
부푼 마음으로 놀러갔더니 폭우가 내린다면? 오히려 좋다. 여러분은 숨은 비경 영도폭포를 접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해발 200m 약근천 중류에 위치한 영도폭포는 물이 잘 빠지는 현무암 지질의 영향까지 더해져 ‘영 보기 힘든 손님’이다. 산간 지역에 70mm 이상의 폭우가 내려야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희소성만큼이나 장관을 이룬다. 압도적인 유량이 50m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그 장관과 소리의 웅장함이 도내 다른 폭포들과는 께를 달리한다. 영도폭포는 찾아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비가 그치면 얼마 안 가 물줄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비를 맞으며 찾는 이도 많다. 탐방로는 전반적으로 잘 조성돼 있지만, 땅이 젖은 만큼 미끄럼 방지가 되는 신발을 챙기는 게 좋겠다. 운영시간 오전9시~오후6시, 입장료 무료. 서귀포시 영도로 104.



제주의 민속·자연을 다룬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관광공사 제공



도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경계 위의 그녀’ 기획전.

▶ 섬이 있는 박물관·미술관으로
비를 직접 맞으며 자연을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 사색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우선 제주에 대해 알고 싶다면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을 추천한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도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도의 민속과 자연, 자연사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관광지로서가 아닌, 삶의 흔적이 커져서 쌓여온 터전으로서의 제주를 느끼고 싶다면 두 박물관을 찾아가 보자.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는 ‘찰나의 영원, 제주를 담다-고(故) 김영갑 작가 기증 사진전’이, 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뜻을 품은 그림 민화’ 특별전시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립미술관은 마치 섬 제주를 모던하게 형상화한 듯 얇은 물 위에 떠있다. 제주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설

전시는 물론 다양한 기획 전시도 이뤄지고 있다. 물론 세계 미술과 현대 미술도 다루고 있어, 제주에서 시작해 세계로 나아가고자하는 방향성을 느낄 수 있다. 현재 ‘우주목(宇宙木)’ 야외 전시와, 묻혀 있던 여성의 삶과 사유를 조명한 ‘경계 위의 그녀’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 도립 미술관으로서 김창열미술관과 그 옆의 제주현대미술관, 서귀포 이중섭미술관도 저마다 고유한 주제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넥슨뮤지엄, 본태박물관, 포도(PODO)뮤지엄, 빛의 벵기, 아르떼뮤지엄 등 개성과 감성이 넘치는 테마 박물관·미술관이 많으니 취향에 따라 골라 가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 비가 와도 뛰놀고 싶다면 실내 액티비티로
아이들을 비롯해 비가 와도 넘치는 에너지를 분출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럴 때 적합한 실내 액티비티 장소들이 있다. ‘다이나믹 메이즈’는 ‘화산섬의 비밀’을 테마로 만들어진 스포츠 미로 테마파크다. 여기에 더해 ▷실내 스포츠 게임을 구비한 ‘981파크’ ▷오락실과 레이저 서바이벌을 즐길 수 있는 ‘엑트론’ ▷TV에는 프로그램 ‘런닝맨’의 포맷을 가져온 ‘런닝맨 제주점’ ▷남녀노소 실제 권총을 쏠 수 있는 ‘제주실탄사격장’ 등을 찾았다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제주에 와서 맑은 날씨만 이어졌다면, 그것은 제주의 절반만 경험해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비 내리는 제주는 분명히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날씨가 흐리다면 실망하지 말고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즐겨보자.

고성현기자 kss0817@ihalla.com

오디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알지만 싱싱하고 몸에 좋은 오디를 어디서 구입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몸에 좋은 오디농원**으로 오세요.

몸에 좋은 오디농원

대표 김재환 올림

연락처 - 010-6614-6829

○ 항세왓

영평하동마을회관

반석아파트

신성여중고

■ 몸에좋은 오디농원 3호

■ 몸에좋은 오디농원 2호

■ 몸에좋은 오디농원 1호

○ 참단과화단지

영평상동마을회관